

Supplement 1. Cases of Conflict between Healthcare Professionals

<2018년도 1학기 임상현장에서의 의료인 간의 의사소통 실습 사례>

1. 의사-의사(전공의-인턴)

나는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인턴이다. 나는 A과의 지원자이고 A과는 우수한 성적과 평판을 가진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과로 알려져 있다. A과 지원자는 인턴 시 그 과를 돌아야 유리하다는 소문이 있어 나는 인턴 턴 배치 시 A과 턴을 가져오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였다. 드디어 A과에 배치되었고 열심히 일했다. B전공의는 A과의 1년차로 나는 A과 지원을 위해서라도 B전공의와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B전공의는 내가 당직 때마다 “선생님 바빠요?”하면서 전화가 온다. “어차피 우리 과 오면 하게 될 일이니까 이것 좀 정리해줄래요?”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나에게 시킨다. 가끔은 일이 많아 억울하고 불만이 생기지만 B는 A과 전공의들끼리 하는 회식 때 불러 술도 사주면서 “어차피 선생님은 우리 과 사람이니까..”하면서 그 과 전공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을 갖게 한다. 오늘은 어머니 생일이고 인턴이 된 뒤 처음으로 가족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기로 한 날이다. 이날 오프를 받기 위해 몇 달 전부터 노력해왔다. 일과가 끝나고 퇴근하기 직전 B에게 전화가 온다. “선생님, 내일 제가 컨퍼런스에서 발표해야 하는데 준비를 하나도 못했어요. 선생님이 좀 도와주시겠어요?” 나는 A과 지원을 포기해야 할지 괴롭다.

2. 의사(전공의)-간호사

나는 외과 전공의 1년차이다. 평소 주치의와 수술장 업무 등으로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다. 수술이 늦게 끝나는 날은 밤까지도 오더를 내지 못해 외과 병동 간호사들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다. 특히 병동 간호사 A는 밤 늦게 드레싱할 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도 늘 통명스럽게 “저 바빠요”하고 지나가 버린다. 그리고 A는 당직 때 꼭 필요하지도 않은 노티로 잠을 거의 잘 수 없게 한다. 새벽 3시에 “선생님, B환자 내일 오더에서 지참 약이 없어요. 넣어주세요.” 이런 식이다. 어제는 병동에서 주치의

업무를 하던 중 수술이 많은 날이라 수술장에서 환자 수술준비를 도와달라고 콜이 왔었다. 나는 수술장에 내려간 사이 혹시나 교수님께서 회진을 돌려 오시지 않을까 하여 A에게 교수님 오시면 수술장 인력부족으로 도와주러 갔다고 말해달라고 했었다. 하지만 간호사는 교수님께 그런 말을 전달하지 않았고 힘들게 수술장 업무를 마치고 올라온 나는 결국 교수님께 호출을 받았고 회진 때 병동에 없었다고 꾸중을 들었다. 나는 화가 나서 A가 근무하는 저녁에 일부러 내 담당 환자들의 다음날 오더를 A의 교대시간이 다 끝나갈 때까지 내고 있지 않다가 교대 직전에 한꺼번에 몰아 넣었다. 결국 A는 교대 후에도 밀린 오더 처리를 하느라 바로 퇴근하지 못하고 연장근무를 하게 되었다. 다음 날 A는 병동 수간호사에게 내가 의도적으로 본인을 괴롭히려고 오더를 늦게 냈다고 이야기했고 간호팀에서는 이 일을 과장님께 공식적으로 보고하여 나는 교수님들께 크게 주의를 받았다. 화가 난 나는 A에게 복수할 날만 버르고 있다.